

보도시점 2026. 10. 30.(금) 11:00
< 10.31(토) 조간 >

배포 2026. 10. 30.(금)

통상교섭본부장, K-콘텐츠 기업과 함께 중국 시장 진출 전략 모색

- 한-중 FTA 서비스·투자 후속협상 관련 문화·관광 업계 현장 목소리 청취 -

산업통상부(장관 김정관, 이하 산업부)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은 10월 30일(금) CJ ENM 센터를 방문하여, 영화·OTT·공연·게임·관광 분야 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.

산업부는 한-중 FTA 서비스·투자 후속협상과 연계하여, K-콘텐츠·관광업 등의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, 한국이 경쟁력 있는 분야의 진출에 도움이 되는 협상 전략을 민간과 함께 모색하기 위하여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였다.

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중국 내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과 수요는 매우 크지만, 높은 소비자 선호가 실제 기업의 수익과 수출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, 기존 수요의 사업화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. 이를 위해, 한-중 FTA 서비스·투자 후속협상에서 ▲우리 기업들이 느끼는 중국의 차별적 규제 완화, ▲정책적 불확실성 제거, ▲콘텐츠 심사·허가 절차의 투명성 및 신속성 보장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.

박 본부장은 “그간 정부는 K-콘텐츠의 중국 수출을 지원하고 관광 업계 등 현지 진출기업의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해 양자 협상 및 한-중 FTA 이행위원회 등 양국 간 협의채널을 적극 가동해왔다”고 언급하며, “특히, 현재 진행 중인 한-중 FTA 서비스·투자 후속협상에서 업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에 만전을 기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통상협정교섭관 통상협정서비스투자과	책임자	과 장	김수진 (044-203-5810)
		담당자	사무관	유채연 (044-203-5811)
		담당자	주무관	박민선 (044-203-5817)